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57 -

“운동하고 얻은 스포츠 포인트,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 공약 발표

- 일정시간 운동으로 의료비 절감효과, 국민 4,300만 명 규칙적 운동 시 연간 약15조원 의료비 절감 기대도
- 운동 참여 시간 환산해 지역화폐·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 운동이력 관리 플랫폼 운영 등 국민 건강 복지 제도 방안 제시
- 이재명 후보, “스포츠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 유지할 기회 제공하겠다”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5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 공약을 발표했다.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포인트로 환산해 지역 화폐 등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국민의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선대위 측이 조사한 유네스코(UNESC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지난 2013년~2017년 5년간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의료비 차액은 연간 약 36만원에 이른다. 이를 20세 이상 성인 인구 약 4,300만 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5조원의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운동하는 국민 모두께 스포츠 포인트를 제공하는 전 국민 건강 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우선 운동에 참여한 시간을 스포츠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환산해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되돌려주는 ‘스포츠 포인트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걷기, 자전거, 헬스, 수영, 축구, 등산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모든 영역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처의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운동 이력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도 공약했다. 공공 체육시설에서부터 시작해 민간시설까지 점차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포인트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은 스포츠관람, 스포츠토트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제도를 보완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스포츠 활동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홈트레이닝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스포츠시설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스포츠 기술 향상과 맞물려 기존의 대면스포츠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스포츠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 □ Q&A 및 참고자료

### Q.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는?

####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

-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0년) 중 상위권에 속함.
- 한편 저출생 및 고령화 가속으로 우리나라 의료비는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보여 OECD 평균 4.4%를 상회하는 수치임(한국보험연구원, 2021).
-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65세 중 9.6%로 OECD 평균인 12.0%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2009년의 3.2%에서 2019년 9.6%로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함.
-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수검자 5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중 3가지 이상 보유), 전체의 약 70%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하는 등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증가 및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 Q. 운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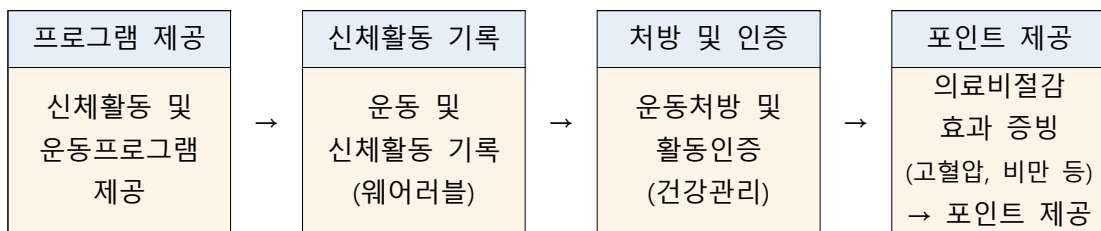
#### ○ 운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는?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만 11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이라는 체육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2013~2017년 5년간 국민체력100 참여자 중 자료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체력100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의 의료비 차액이 연간 약 36만 원으로 나타남.
-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9년 기준 국민체력100 참여자 30만 명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1,200억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유네스코(UNESCO)는 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Q. 스포츠 포인트제?

### ○ 스포츠 포인트제와 그 실행 방안은?

- 국민 개개인의 스포츠 참여 이력을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및 참여 기반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앱)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운동과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
- 앱을 활용하여 개인이 참여한 운동신체활동 이력 및 건강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연동해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운동을 처방하고 활동을 인증하여 건강을 관리



- 맞춤형 국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청소년의 체력 증진, 성인의 대사증후군 예방, 노인의 치매예방 등 운동효과 극대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스포츠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 Q. 해외의 사례는?

### ○ 선진국의 유사 사례는?

- 선진국에서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사들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액수에 대해서 건강증진 행위 당 15달러, 연간 총 5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하였으며 2014년에 그 상한선을 폐지하였음
- 독일, 호주, 일본 등 공적 의료보험이 강한 나라들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허용
- 일본에서도 총무성·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의 지원 아래 2014년부터 ‘건강포인트제도’를 도입. 이 사업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강 무관심층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건강 포인트(건강 마일리지) 제도는 일본의 국가 전략인 ‘건강수명의 연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의 하나로서 추진 중

## Q. 예산 확보는?

### ○ 스포츠포인트제의 예산확보 방안은?

- 스포츠 참여 증가에 따른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의 사용자수 증가 및 세수 증액 (민간체육시설 참여 유도에 따른 세수 투명성 제고 효과)
- 국민생활체육 참여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 효과와 그에 따른 건보료 감소분 (운동참여 데이터를 이용한 실효적 의료비감소 효과 연구 기반)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축적과 이를 이용한 민간투자 유인 (데이터 산업 연계와 이를 통한 수익창출)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건강 피트니스 마케팅 및 사업화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라이선싱 등 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

## Q.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의 기대효과는?

### ○ 기대효과는?

- 20세 이상 인구 4,300만 명 기준 1인당 36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면 약 15조 4,800억 원의 예산(의료비)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 5,766억 원의 17.3%에 달함
- 운동을 통한 사전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통해 만성질환 유병율을 절감하고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을 감소하며 고령자의 생활기능 체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 전반의 건강 증진이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절벽시대에 스포츠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신체 활동을 통해 절감되는 의료비만큼을 기본소득과 함께 제공하여 실현이 가능한 중세 없는 복지 추진.